

가계빚 또 역대 최대…대출규제에 증가폭은 축소

3분기 1968조3000억 14조9000억 ↑

주담대 11조 늘어…신용대출 감소세

올해 3분기(7~9월)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전체 가계 빚(부채)이 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지만 6·27 대책 등에 증가 속도는 뚜렷하게 떨어졌다.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68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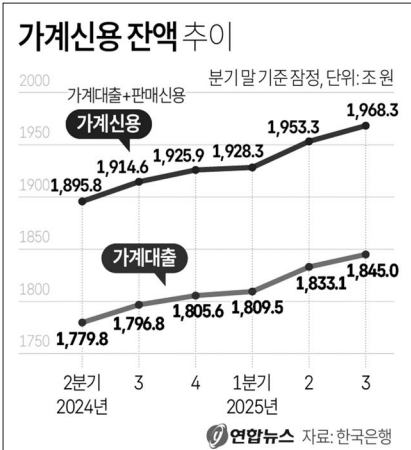
2분기 말(1953조3000억원)보다 14조9000억원 늘어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이래 가장 많았다.

다만 분기 증가 폭은 역대 최대였던 2분기(25조1000억원)보다 약 10조원(40%) 줄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를 말한다.

우리나라 가계신용은 통화 긴축 속 지난해 1분기 3조1000억원 줄었지만, 한



분기 만에 반등한 뒤 올해 3분기까지 여섯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카드 대금)을

빼고 가계대출만 보면 3분기 말 잔액이 1845조원으로 전 분기 말(1833조1000억원)보다 12조원 늘었다. 증가액은 전 분기(+23조6000억원)의 약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잔액 1159조6000억원)이 11조6000억원 늘었고, 신용대출과 증권사 신용공여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잔액 685조4000억원)도 3000억원 증가했다.

대출 창구별로는 예금은행에서 가계대출(잔액 1003조8000억원)이 석 달 사이 10조1000억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이 10조9000억원 늘었지만, 기타대출은 8000억원 뒷걸음쳤다.

상호금융·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잔액 316조2000억원)도 2조원 늘었다. 지난해 4분기 이후 네 분기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증가 폭은 2분기 3조원보다 줄었다.

보험·증권·자산유동화회사 등 기타금융기관의 가계대출(잔액 525조원)은 1000억원 감소했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3분기 가계대출 특징과 관련해 “6·27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줄고, 신용대출 한도가 차주별 연 소득 이내로 축소되면서 신용대출이 감소세로 돌아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 폭도 2분기보다 줄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3분기 가계부채가 0.8% 늘어 증가세가 둔화한 데다 3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실질 GDP 성장률(1.7%)로 미뤄 3분기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3분기 가계신용 가운데 판매신용 잔액(123조3000억원)은 신용카드사를 비롯한 여신전문회사 위주로 3조원 증가했다.

김 팀장은 “민간 소비가 회복되는 가운데 휴가철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 부가가치세 납부 등으로 판매신용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코스피, 美금리 우려·AI 버블에 4000선 아래로

3.32% 급락 3953.62 마감

반도체·대형 기술주 휘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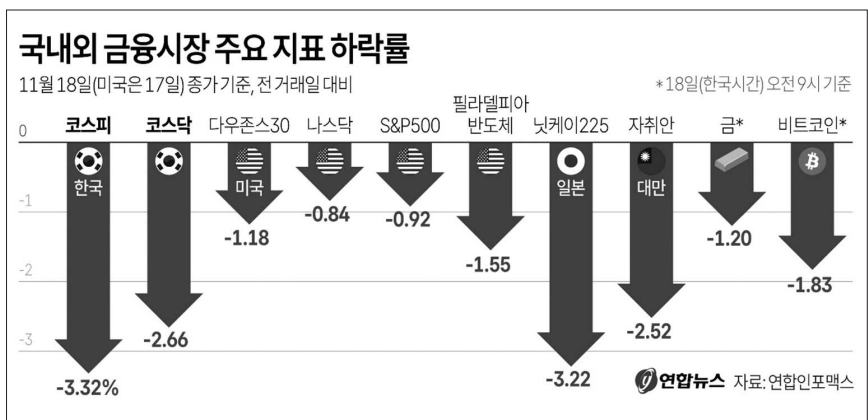
코스피가 미국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 우려와 재점화된 ‘AI 버블론’에 3% 넘게 급락하며 4000선 아래로 주저앉았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장 대비 135.63p(3.32%) 내린 3953.62로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4000선 아래로 내려온 건 이달 7일 이후 7거래일 만이다. 지수는 44.78p(1.10%) 내린 4044.47로 출발한 직후 4072.41까지 내림폭을 줄였으나 이후 꾸준히 낙폭을 확대해 3953.26까지 밀리기도 했다.

이날 코스피 하락을 주도한 건 기관과 외국인이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은 6768억원을 순매도한 가운데 금융투자과 연기금이 각각 4287억원과 594억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다.



외국인도 5502억원을 순매도했으나 개인은 홀로 1조2414억원을 순매수하며 저가매수에 나섰다.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주가지수가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필립 제퍼슨 연방준비제도(연준·Fed) 부의장이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천천히 진행(proceed slowly)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연준이 내달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인바 기대가 약화된 것이 시장 충격으로 이어졌다.

역만장자 투자자 피터 틸의 헤지펀드

틸 매크로가 지난 분기 9400만 달러(약 1375억원) 규모의 엔비디아 주식을 전량 매도한 것도 AI 관련주의 투자심리를 냉각시켰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 최근까지 지수 상승을 견인하던 반도체와 대형 기술주들이 일제히 하락했다.

SK하이닉스는 5.94% 급락한 57만원, 삼성전자는 2.78% 내린 9만7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스퀘어(-6.90%), 한화에어로스페이스(-5.92%), LG에너지솔루션(-

4.32%), 두산에너빌리티(-4.31%), KB금융(-3.39%), 셀트리온(-3.21%), 현대차(-2.58%), 기아(-2.47%), NAVER(-2.35%) 등 여타 시가총액 상위주도 일제히 내렸다.

‘마스가’(MASGA)로 불리는 한미 조선 산업 협력 사업 기대감에 장초반 강세를 보이던 HD현대중공업(0.00%)과 한화오션(-2.37%)도 오후 들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거나 하락전환하는 모습을 보였다.

코스닥 지수도 23.97p(2.66%) 하락한 878.70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은 3843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도 기관은 각각 1857억원과 1185억원을 순매도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14조451억원, 9조3509억원이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거래 증가는 7.3원 오른 1.465.3원을 기록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KT, 새 대표이사 후보군 33명 심사 착수

인선자문단 구성 비공개

KT 이사회추천위원회가 지난 4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한 대표이사 후보 공개 모집과 사내 후보, 전문가 추천을 포함해 총 33명의 후보로 대표이사 후보군 구성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KT 이사회추천위원회는 대표이사 후보 심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경영, 산업, 리더십·커뮤니케이션 등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선자문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인선자문단은 사내의 대표이사 후보군에 대한 서류 평가 의견을 위원회에 전달

한다. 위원회는 이를 참고해 대표이사 후보를 압축할 계획이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선자문단의 구체적인 구성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사회추천위원회는 이번에 구성된 대표이사 후보군을 대상으로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연내 최종 1인을 선정하고, 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사회는 이사회추천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주총회에 추천할 최종 후보 1인을 확정한다. 해당 후보는 2026년도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임 대표이사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송태영 기자 ty1235@gwangnam.co.kr

올해 김장비용 20만원선 전년대비 5.6%↓

정부 등 할인지원에 배추·무 소매가 하락

본격적인 김장철이 다가온 가운데 올해 김장에 들어가는 비용은 2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에 따르면 김장 성수기(11월 중순~12월 상순)를 맞아 김장비용을 조사한 결과 전날 기준 20만1151원이 소요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1만3003원) 대비 5.6% 적은 금액이다.

올해 김장비용은 주요 김장재료 14개 품목에 대해 전국 17개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업체를 조사한 결과로, 정부와 유통업체의 자체 할인이 반영됐다.

주재료 중 배추와 무는 추석 이후 잦은 강우로 작황이 부진해 최근 도매가격은 상승세에 있으나, 역대 최대규모의 김장철 농축산물 할인지원으로 인해 소매가격이 지난해 대비해 배추와 무가 각각 10%, 24%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매가격은 이달 하순부터 남부지역에

서 본격적으로 출하되면 하락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추, 무 이외에도 배, 새우젓, 소금과 같은 부재료 가격도 지난해보다 각각 28%, 8%, 10% 하락하며 김장철 정비구나 부당 원화에 일조했다.

반면 양념으로 사용되는 마늘, 양파는 지난해보다 각각 9%, 6%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평년 대비는 각각 8%, 13% 낮은 수준이다.

문인철 aT 수급이사는 “마늘·양파는 김장철 마늘·양파 수급대책에 따라 정부 비축 물량을 공급하고 있어 향후 안정세가 기대된다”며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주요 품목들의 수급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T가 조사한 김장비용 상세 정보는 농수산물유통정보 ‘카미스 누리집(kam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광주, 사랑 담고 나눔 더하는 ‘김장대전’ 연다

28일~내달 14일 김치타운서

‘빛고을 사랑나눔 김장대전’이 오는 28일부터 12월14일까지 광주김치타운에서 열린다.

광주시는 시민들이 김장철을 앞두고 손쉽게 김장을 준비하고, 기업·단체의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김장대전을 운영하고 있다. 김장대전 재료는 광주·전남지역에서 생산된 배추, 고춧가루, 멸치액젓, 소금 등을 공동구매해 제공되며, 세계김치연구소와 대통령상 수상자가 공동 개발한 레시피로 김치를 담근다. 김장가격(10kg 기준)은 현장 마무리기

6만6000원, 현장 수령(완제품) 6만8000원, 택배(완제품) 7만원이다. 전통식품품질인증과 식품안전관리(해설) 인증을 받은 지역 김치제조업체가 참여해 시중보다 저렴하게 공급·판매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김장대전 공식 누리집(www.kimchigwangju.co.kr)에서 사전신청해야 한다. 김치 기부 행사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김장대전 사무국(062-676-3601)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는 김장철 외에도 시민들이 연중 김치를 담글 수 있도록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둘째·넷째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김치 담그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한전, 765kV 기술 교육 워크숍

K-전력기술, 북미 시장 공략

한국전력이 미국의 주요 전력회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력망 기술력을 선보이며 ‘K-전력기술’의 북미 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했다.

18일 한전에 따르면 최근 북미 전력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765kV 기술 교육 워크숍’을 시행했다. 워크숍에는 TC Holdings, AES Corporation 등 9개 전력회사, Burns&McDonnell, POWER Engineers 등 3개 엔지니어링회사, 미국 전력연구소(EPRI) 등 총 13개 기관, 37명의 북미 전력산업 관계자가 참여했다.

교육은 최근 북미지역 765kV 전력망 건설이 본격화되고, 관련 기술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EPRI가 한전에 미국 전력회사 대상 765kV 기술 교육을

요청하면서 성사됐다. 참가자들은 한전 신안성변전소에서 변압기, GIS, 철탑 등 765kV 설계용 핵심 설비를 시찰하고 전자파·소음 측정과 드론 점검 등 시연을 통해 최신 유지보수 기술을 확인했다.

한전 고창전력시험센터에서는 765kV 설비가 실제 계통에 적용되기까지 거치는 다양한 안정성·신뢰성 검증 과정을 소개하는 시험 기술 참관이 이뤄졌다.

참가자들은 철탑 승탑과 코로나케이지 송전선로의 실제 구간을 축소 모델로 재현해 코로나 방전현상을 정량화할 수 있는 시험설비를 활용한 전기환경 측정 시험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실험을 직접 경험하기도 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남구, 1금고 광주은행·2금고 국민은행 선정

광주 남구가 구청 세입·세출 자금의 안정적인 운영과 행정기관, 금융기관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 금고 은행 2 곳을 선정했다.

남구는 18일 지방회계법과 남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 구청 재정 운영 담당 은행으로 광주은행과 국민은행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두 금융기관은 내년부터 오는 2029년까지 4년간 1금고와 2금고 운영을 맡는다.

은행 2곳에서 관리하는 남구청 재정 규모는 7000억원대다.

이번 선정은 현재 구청 재정 살림을 맡고 있는 금융기관과의 약정기간이 오는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른 것이다.

남구는 지난 9월부터 공개경쟁을 통해 구 금고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 뒤 지난달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개최, 신용도 및 재무안정성과 예금·대출 금리, 지역민 이용 편의성, 금고 관리능력 등 20개 세부 항목을 평가해 고득점순으로 향후 구 금고 운영 금융기관을 선정했다.

1금고로 선정된 광주은행은 향후 4년 간 일반회계 세입·세출 자금을 담당하며, 2금고를 운영하는 국민은행은 특별회계

와 기금을 관리한다.

또 해당 은행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을 비롯해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 지급 등 금고 업무 전반을 수행하며, 구청과 손잡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도 추진한다.

남구 관계자는 “2곳의 금융기관은 그간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정적 인 금고 운영뿐만 아니라 재정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사회 상생에 이바지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남구는 지난 17일 구청 1층 열린 민원실에서 광주은행과 1금고 약정 체결식을 진행했으며, 오는 21일에는 국민은행과 약정을 체결한다.

윤용성 기자 yoi1404@gwangnam.co.kr